맥주만 마셨나…추경·민생법안은 언제?

여야 갈등에 국회 장기 파행
추경·민생입법 논의 올스톱
다음달 국회 자동 개회
일정 합의까지 첩첩산중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장기화하면서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민생입법에 줄줄이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교체 직후인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난 20일 '호프타임'을 갖는 등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수차례 회동에도 이견만 확인했다. 26일 현재 확인된 유일한 공감대는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어 국회 정상화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놓였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7일께 정부로부터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심사에 착수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추경을 처리하는 시간표를 그려왔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 협상에 진전이 없어 5월 마지막 주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5월 마지막 주에 국회를 열어 추경 시정연설을 잡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과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간다고 봤는데 갑자기 황당한 수준의 요구를 해오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닌 이인영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 정도에다가 '선거법 개정의 합의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수준의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는 당내 의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야 협상의 난맥상을 시사했다.

국회법상 짝수 달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해도 다음 달 1일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그러나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를 신속히 합의하지 못하면 6월 임시국회 역시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과 견해차를 좁혀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심사에 착수해 처리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려면 시간이 걸려 추경 심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추경 처리 완료 때까지 현 예결위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추경 심사가 급하다면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자해지부터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원 임기를 당분간 연장하는 문제 등도 차후의 일로 보고 있다.

추경안 이외에도 먼지 쌓인 민생법안은 한두 건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유치원 3법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인 6개월이 거의 끝나가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이미 처리가 필요한 시기를 한참 지나쳤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26일 오후 국회 정문에 차량을 통제하는 정지 표지판과 국회 본청이 대비되고 있다. 6월 국회가 열려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민생입법 등 일정 합의까지 첩첩산중이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孫 혁신위 카드' 갈림길

개혁 이끌 혁신위원장 물색
바른정당계 반대 목소리
사태 진정 vs 갈등 재연 분수령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던 바른미래당 내홍 사태가 일단 한 고비를 넘기고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손학규 대표의 면전에서 퇴진 맹공을 퍼붓던 바른정당계가 '주포' 하태경 최고위원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발목이 잡히며 목소리를 낮췄고, 이를 계기로 당내 갈등이 잦아드는 모양새다. 여기에 손 대표의 인사권을 인정한 법원 결정으로 당권파 대 바른정당계의 팽팽했던 힘의 균형은 당권파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계속되는 파열음에 따른 부정적 여론도 '손 대표 퇴진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른정당계 내에서 손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자는 강경론이 만만치 않아 당 정상화는 현재로서 요원한 상황이다.

일단 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바른정당계의 공세가 사실상 '끝물'이라고 판단하고 당초 공언한 혁신위원회 등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계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최고위에서 "용퇴를 거부했다면 당 운영이라도 민주적으로 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한 점을 당권파는 '퇴진론 철회'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권파 한 의원은 26일 "당 최고위가 시끄러운 것은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며 "일부 최고위원이 며칠 더 물고 늘어질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파 의원은 "바른정당계가 이제는 임시 최고위 소집도 하지 않는 등 동력을 상실한 모양새"라며 "손 대표가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혁신·개혁 노선을 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대표 측이 구상하는 혁신·개혁 노선은 그가 앞서 제안한 혁신위원회와 총선전략기획단 출범을 뜻한다. 현재 손 대표는 혁신위를 이끌 중량감 있는 인물을 당 바깥에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바른정당계는 혁신위 출범에 대한 엇갈린 찬반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부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혁신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당권파와 바른정당계는 언제든 충돌할 수 있다. 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은 "혁신위 자체가 손 대표의 아이디어로, 손 대표의 정치적 생명만 늘려주는 것이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신환 원내대표는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들러리 혁신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집권 세력 철학과 목표 중요"

유시민 지역방송 출연…"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 기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많은 분이 리더에게 기대를 걸지만, 집권은 세력이 하는 것"이라며 "자연인으로서 장단점도 봐야 하지만, 어떤 철학과 정치목표·문화를 가진 세력이 집권하느냐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광주지역 한 방송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특집 방송에 출연해 "광주와 전남·북만 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은 세력이 집권하면 유능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에 가고, 지역 사업을 중앙 정부와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세력이 바뀌어서 그런 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이후 국가 운영을 책임 맡아 나갈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거론되는 모든 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분들 중에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대정신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변함없이 민주주의, 서민·중간층 삶을 개선하는 경제발전과 소외된 지역 없는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공존·번영 등 3가지"라며 이에 대한 민주·진보 진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희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선거제 개혁안 등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기대감도 드러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스스로 권력기관으로서 자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수처법을 추진했는데 제가 국회에서 본 거로는 검찰이 와서 의원들에게 로비하니 진도가 나가지 않더라"고 지적한 뒤 "(공수처법에) 반대해온 정치세력이 9년 집권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는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하얀 구두, 까만 구두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고 다양한 디자인을 놓고 고르는 구둣가게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절반 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것만 해도 저는 좋다"고 평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가라운지

대기오염 배출농도 조작 근절법 개정안 발의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 을)은 최근 여수산단 내 일부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부 대기오염 배출사업자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기존 측정 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하고, 측정 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이다"며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해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더 보고 듣고 살피고…당원 대토론회 개최

서삼석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도당 위원장,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4일 전남도당 대회실에서 '3더 (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고) 당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현대화를 위해 지역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당원들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당원 100여명은 ▲총선 승리를 위한 지역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3개 지역(영암·무안·신안) 협력 상생 방안 등에 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결과 당원들은 공정한 공천관리, 농촌지역 20대 청년층 소통대책, 가짜에 뉴스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강력 대책마련, 읍면협의회 당원소통강화 SNS를 활용한 홍보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임 야
단독섬
▶ 바로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문의. 010-6834-7400

다스코㈜ 세라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3.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EPC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개발사업 유경험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 담당자 0213440-7842, jykang@das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타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R&D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경력직)	
세라코	수질정화	설계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나주
	세라믹 (정토벽돌)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R&D	• 요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접수문의 : 담당자 061)370-2137, recruit@dasco.kr, 접수기한 : ~ 채용시까지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 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총 4회)
시 간 오후 3시 ~ 6시
장 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동구 금남로 221)
대 상 중3+고등학생(20명)+학부모(10명)
지 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신 청 ☎010-5205-5668(문자로 연락 바람·단체 지원 환영)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2. 소설강의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작가 3.토론:박해용박사
2	5월24일(금)15~18시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3	5월30일(목)15~18시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4	5월31일(금)15~18시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장정희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주관 | 소크라테스대화법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